

6월 12일(월) / 계4-6장

▶**내용요약:**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다. 4장은 모든 환란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온다. 5장에서는 우주와 만물을 심판하는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린 양은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다. 6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기록된 책이 어린 양에게로 옮겨지자 일곱 인을 차례대로 떼는 사역이 시작되면서 여섯째 인까지 인봉이 해제된다.

▶**질문:**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가 가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서 나오는 이 향에 대해 말씀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5장)

▶**생각하기:**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 당하신 어린양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세상과 만물을 심판하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주님은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

6월 15일(목) / 계13-15장

▶**내용요약:** 13장은 용에게서 큰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크게 핍박한다. 짐승의 표인 666이 등장한다.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십사만 사천명으로 상징되는 순결한 성도들에 대해 기록한다. 15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리기 전 준비단계를 묘사함으로 무서운 재앙의 서막을 열고 있다.

▶**질문:** 모든 나라에게 자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큰 성은 어디인가?(14장)

▶**생각하기:** 계시록 14장은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킨 십사만 사천명에 대해 기록한다. 그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14:4-5)로 묘사된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어떤 환경에서든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6월 18일(주일) / 수1-5장

▶**내용요약:**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된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토지 분배에 대해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록한 책이다. 1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용기를 주면서 가나안 진군을 명하신다. 이어 백성들은 준비와 함께 여호수아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2장은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환한

6월 13일(화) / 계7-9장

▶**내용요약:** 7장은 첫째 재앙인 일곱 인의 재앙 가운데 여섯째 인까지 떼 후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되는 장면이다. 구원받은 자들로 인침을 받은 십사만사천명이 등장한다. 8장은 일곱째 인을 떼므로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면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된다. 특히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응답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 9장은 다섯째 나팔의 재앙인 황충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으로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한다.

▶**질문:** 황충이 나와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 그 괴롭힘이 무엇이 사람을 쓸 때와 같은 괴롭힘이라고 비유하는가?(9장)

▶**생각하기:** 계시록 7장 17절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한다. 큰 위로의 말씀이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친히 씻어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가!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6월 16일(금) / 계16-18장

▶**내용요약:** 16장은 하나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난다.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빠르게 쏟아 부음으로 마지막 재앙의 두려움과 격렬함을 더해 준다. 17장은 바벨론을 큰 음녀로 묘사하면서 그녀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심판을 기록한다. 18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바벨론의 모습과 슬픔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와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을 대조한다.

▶**질문:** 큰 음녀인 바벨론이 탄 짐승은 일곱 머리와 함께 몇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가?(17장)

▶**생각하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18:2)라고 하면서 하나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표현된 악한 세력이 역사의 종국에는 패배하게 될 것을 선언한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18:4)고 권면한다. 죄악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자!

다. 3장은 이스라엘이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다.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강에서 건진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길가에 세운다. 5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생활 40년간 시행하지 못했던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 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이라 하느니라(5장)

6월 14일(수) / 계10-12장

▶**내용요약:**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사이에 삽입되는 내용이다. 10장은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요한은 천사의 명령대로 두루마리를 먹는다. 11장은 성전과 거룩한 성,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다. 12장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환상과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진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사람들을 핍박하는 환상을 볼 수 있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큰 용이 내뿜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12장)

▶**생각하기:**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10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을 통해 말씀 전하는 사명을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자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맡은 복음전도자로 우리를 전공 불문하고 한국성서대로 부르셨기에 우리 역시 복음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자!

6월 17일(토) / 계19-22장

▶**내용요약:** 19장은 바벨론 멸망과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찬송하는 찬양이 이어지고 그리스도가 짐승과의 마지막 격전을 치루고 악의 세력을 불 못에 던져버린다. 20장은 성도들이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대해 기록한다. 21장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다. 22장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누릴 축복인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 기록한다.

▶**질문:**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제공하는 역할은 무엇인가?(22장)

▶**생각하기:** 성경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7절, 12절, 20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신다. 주님의 재림은 결국 최후의 승리와 함께 성도들이 당한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기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한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자!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생각하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3:5)고 명령한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 때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성결이 요구됨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기 원하는가? 정답은 성결이다!!!